

마틴 부버의 실존철학에 근거한 코칭대화모델에 관한 고찰 - 사이(Between)를 중심으로 -

윤하준 (개신대학교대학원 코칭학 석사과정)

요약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인간의 실존적 인간에 대해서 본질적인 인문학적질문을 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공지능(AI)와 로봇으로 상징되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요인들이 가장 인간적인 요소들을 과학기술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산업혁명이 도리어 대량 실직을 유발하고 사람을 기계와 같은 것으로 보는 로봇공학적 관점, 혹은 사람을 동물과 같은 존재로 보는 진화론적 입장에서 산업혁명이 진행된다면 인간의 실존은 무엇인가? 인간의 실존은 고등동물로서 오직 기업들이 양산하는 광고마케팅에 대한 반응과 소비의 총동 속에서 생존이라는 굴레를 안고, AI기능을 갖춘 로봇과 동거동락하는 생태계에서만 그 가치가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인문학적 질문과 의문은 인간 실존의 존재방식, 인간 실존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세상과 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갈 것인지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깊은 고찰 가운데 성경적 실존주의 필요성이 한국교회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인간 내면의 소리를 깊이 경청하고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의 실존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성경적 인간으로의 존재 회복과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크리스천 코칭대화모델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들 중 좀 더 성경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마틴 부버의 실존주의의 주요 요인들을 선행 연구를 통해서 파악하고 이들 요인들이 성경적 코칭에 대한 개념 정리와 실질적인 코칭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사람들의 불안, 소외현상, 인간성 상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한 마틴 부버의 실존주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독교 코칭, 성경적 코칭에 대한 선행연구들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크리스천 코칭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크리스천 GRACE 코칭대화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마틴 부버의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주요 요인인 ‘하시디즘’과 ‘만남’의 철학에서 ‘나-너’의 주체성을 가진 인격으로서 세상가운데 관계의 개념으로 인간의 위치와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참다운 인간 존재는 고립된 실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형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으로 인간과 인간관계도중요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관계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너(창조주 하나님)-나(인간 실존)’의 사이(between)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을 통하여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 인간 실존 가운데 존재케 하는 GRACE 코칭대화모델 개발에 대한 근거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마틴 부버의 유신론적 실존철학에 기반한 코칭적 접근이 성경적 크리스천 코칭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따른 중요성 인식을 돕고자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정립하도록 코칭하여 기독교가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소외와 외로움, 그리고 정체성 회복 없이 허무주의로 방향하고 있는 영혼들의 복음이 될 수 있음을 확신 속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실존주의, 마틴 부버의 실존주의, 코칭, 크리스천코칭, GRACE 코칭대화모델

I. 서론

과학의 기술과 지식으로 인해 태어난 기계문명은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이것은 인간을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 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기계가 인간 노동의 중심에 서게 되고, 인간을 주변으로 밀려나게 만들으로써 그러한 삶의 기대는 무너지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소외현상을 야기시켰다. 그리고 20세기 초 두 번에 걸쳐 일어난 세계대전은 인간의 삶을 무참하게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전쟁의 도구로 전락시켜 인간의 존엄성이 스스로 짓밟히고, 인간의 재산과 생명이 극도로 위협받고 인간성이 상실되는 극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인간 스스로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 소외현상과 인간성 상실, 불안의 상태는 현대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돌입하면서 더 심화되는 상황에 놓여졌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인간의 실존적 인간에 대해서 본질적인 인문학적 질문을 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공지능(AI)와 로봇으로 상징되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요인들이 가장 인간적인 요소들을 과학기술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산업혁명이 도리어 대량 실직을 유발하고 사람을 기계와 같은 것으로 보는 공학적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된다면, 사람을 동물과 같은 존재로 보는 진화론적 입장에서 혁명이 진행된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존재하는 인간의 실존은 오직 반응과 소비의 충동 속에서 생존의 굴레 속에서 고등동물로서의 AI기능을 갖춘 로봇과 동거동락하는 생태계에서의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인문학적 질문과 의문은 인간 실존의 존재방식, 인간 실존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세상과 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갈 것인지에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깊은 사고 가운데 성경적 실존주의의 필요성이 기독교내에서 제기 되고 있다. 이에 인간 내면의 소리를 깊이 경청하고 존재하는 사람들의 실존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코칭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들 중 좀 더 성경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마틴 부버의 실존주의의 주요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파악하고 이들 요인들이 성경적 코칭에 대한 개념 정리와 실질적인 코칭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사람들의 불안, 소외현상, 인간성 상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1. 연구의 목적

코칭은 관계와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관계방식인 크리스천 코칭은 앞에서 언급한 인간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갈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크리스천 코칭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주제를 도입하여 적용한 선행 연구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것을 이해하고 대화와 관계맺음의 현장에 적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세부적은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틴 부버의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주요 요인인 ‘하시디즘’과 ‘만남’의 철학에서 ‘나-너’의 주체성을 가진 인격으로서 세상가운데 관계의 개념으로 인간의 위치와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참다운 인간 존재는 고립된 실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형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으로 인간과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관계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너(창조주 하나님)-나(인간 실존)’의 사이(between)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을 통하여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 인간 실존 가운데 존재케 하는 GRACE 코칭대화 모델 개발에 대한 근거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실존주의, 마틴 부버의 실존철학, 코칭과 크리스천 코칭에 대한 선행연구와 관련된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 방법(literature reserch)에 이루어 졌으며, 이를 토대로 크리스천 GRACE 코칭대화모델을 개발하였다. 이와같은 연구를 위하여 선행 연구논문과 학술지, 성경, 국내외 저자의 전문서적을 통해 살펴본 마틴부버의 실존철학 이론과 코칭 관련 선행연구 등의 문헌 연구 범위 안에서 GRACE 코칭대화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마틴 부버의 실존철학에 근거한 크리스천 코칭대화모델에 관한 고찰에 대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에서는 서론 부분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그 필요성,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를 작성하였다.

제 II 장에서는 실존주의의 고찰로서 실존의 의미와 정의, 실존주의 철학, 유신론적 실존의 의미와 무신론적 실존의 대해 고찰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 마틴부버의 실존철학에 대하여 사상적 배경, 사이(Between)의 실존, 근원어, 나와 그것의 관계(I-It), 나와 너의 관계(I-Thou), 영원한 너(eternal Thou)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 IV 장에서는 코칭의 이해로서 코칭의 정의, 코칭의 분류와 기술, 코칭의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해 볼 것이다.

제 V 장에서는 크리스천코칭의 이해로서 크리스천코칭의 의미, 설계된 GRACE 코칭대화 모델의 각 요소인 목표, 인식, 실행, 협력,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제 VI 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서 본 연구의 의의와 추가 연구영역을 제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실존주의의 고찰

1. 실존의 의미

실존(Existenz)은 그리스어 ‘Exsistere’에서 연유한다. ‘Exsistere’에서 ‘ex’는 ‘바깥’을,

‘sistere’는 ‘존재’를 뜻하기 때문에, ‘Exsistere’는 외적 존재, 즉 바깥에 드러나 있는 존재를 뜻한다. 따라서 실존은 본질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질은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고 속이나 밑에 잠겨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¹⁾

플라톤은 감각적 지각과 사유를 구별하고, 감각적 지각 안에 주어진, 변화하는 현상 속에 있는 존재자와 사유로써 인식 가능한 불변하는 본질 속의 존재자를 구분하였는데, 이것을 형상, 또는 ‘이데아’라고 칭하였다. 본질이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라면 실존은 ‘과연 있는가?’ 또는 ‘어떻게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실존은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는 것이며, 영원불변한 실재로서의 본질이 아니라 현실적 구체적으로 있는 개개의 현실존재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실존이라는 개념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개조되었다. 실존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실존만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책상이나 시계와 같은 사물과는 달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그 존재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해 갈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현실존재인 것이다.²⁾

2. 실존주의 철학

따라서 실존주의 철학이란 대중 속에 묻혀 진지한 자기반성 없이 일상적이고 평균화된 삶을 살아가기 쉬운 인간들로 하여금, 부단히 자신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스스로 결정해가는 자기, 즉 본래적 자기를 회복하도록 촉구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인가?”라는 강연에서 실존주의 사상을 신을 전제로 한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신을 부인하거나 신과 무관한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구분하였다.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로 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와 마르셀, 부버 등이 있으며, 이들은 신을 통해서, 신과의 만남을 통해, 신으로 초월시킴으로써 본래적 인간으로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로는 니체, 하이데거, 사르트르 등이 있으며, 이들은 이성과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거나 책임지는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본래적 인간으로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였다.³⁾

이들 중에서 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사르트르의 실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사이(Between)의 실존을 말하고 있는 마틴 부버의 실존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3. 유신론적 실존

(1) 키에르케고르의 실존

키에르케고르(S. Kierkegaard, 1813~1855)를 실존주의 창시자라고 불리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존주의를 헤겔철학에 대한 반동의 철학이라고 한다. 헤겔철학이 삶의 문제와는 거리가 먼 추상적이고 관점적인 데 반하여 실존주의는 삶의 문제를 중심에 둔 구체적이고 실

1) 박영식, 「서양철학사의 이해」,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8), 389.

2) 이상일, 「마틴 부버의 실존에 관한 연구 - 나와 너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4-15.

3) 이상일, 앞의 책, 1-2.

재적인 철학이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르의 ‘주체성이 진리다’라는 선언이 그의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주체성이란 육체를 가지고 원죄에 허덕이는 존재로서, 부단히 자기 자신의 존재 방식에 관심에 쏟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간적 현실존재, 즉 실존을 말한다.

그에게 있어서 실존의 과제는 참된 자기 자신, 본래의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3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이는 심미적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를 말하고 있다. 그는 이것을 ‘실존의 변증법’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신 앞에선 단독자’이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유한성을 깨닫게 되고 성실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며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게 된다.⁴⁾

(2) 야스퍼스의 실존

야스퍼스(K. Jaspers, 1883~1969)는 그의 철학을 현대사회를 진단하고 비판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그는 현대사회를 기계와 기술, 대중의 시대요, 따라서 개성은 기계의 부품으로 되어버린 시대라고 하였다. 이처럼 인간소외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인간의 자기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길로 야스퍼스는 실존철학을 제창한다. 이것을 관통하고 있는 개념은 ‘좌절을 통한 초월’에로의 의욕이다. 이것은 ‘세계로부터 실존으로’, 그리고 ‘실존으로부터 신으로의 이중의 초월’로 나타난다. 세계는 물질, 생명, 마음,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존재의 전체를 의미한다.

실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실존은 자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다. 둘째, 실존은 교통하는 존재로서 상호교제 속에서 비로소 참된 자기를 발견하며 가장 깊은 고독으로 돌아가며 또 이 고독이 다신 실존 상호간의 교제를 요구한다. 셋째, 실존은 역사적 존재인데, 실존은 언제나 결단을 통해 행동하고 그 행동을 통해 역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스퍼스는 실존은 한계상황을 넘어서 포괄자, 즉 신으로 초월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암호해독을 통해서 한다. 빛나는 별, 한 떨기 꽃, 떨어지는 낙엽에서부터 자연적 재해와 역사적 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암호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좌절 속에 초월이 있고, 좌절이 바로 초월인 것이다. 이 초월 속에서 본래의 자기와 만나게 되고, 죽음, 고통, 경쟁, 죄라는 한계상황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이다.⁵⁾

4. 무신론적 실존의 의미

(1) 하이데거의 실존

하이데거(M. Heidegger, 1889~1976)는 야스퍼스와 더불어 현대 독일이 낳은 대표적 실존철학자의 한 사람이다. 그는 신의 존재를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고, 신과 무관한 실존을 주장하고 있다.

인간이란 존재자가 다른 존재자에 비해 탁월한데, 그는 인간을 현존재(Dasein)라고 지칭한다.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이해 때문에 “자신의 밝혀져 있음”이며, 자기 본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자신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현존재는 “존재해야 함”과 “존재가능성”이다. 짐승도 신도 실존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인간만이 그 자신으로 존재하든지 혹

4) 박영식, 앞의 책, 386-394.

5) 앞의 책, 394-396.

은 안하든지 식으로 자기 자신의 가능성으로 실존한다.⁶⁾

인간이란 ‘주관’과 같은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인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거기에 있는 구체적인 인간, 따라서 ‘내가 있다’ 또는 ‘네가 있다’와 같이 언제나 인칭을 수반하는 각자적인 인간으로서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문제 삼고 거기에 관심을 쏟는 현존재이며, 이를 실존(Existenz)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일상생활은 본래의 자기, 즉 실존을 보려하지 않고 자기의 심연을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것들에 눈을 감고서 퇴폐한 생활, 전락한 생활을 하면서 소위 세상사람(das Man)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참되고 본래적인 자기, 즉 실존으로 돌아가도록 자각시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불안이라고 한다. 그는 불안의 근원을 죽음이라고 하였는데, 죽음은 현존재의 존재에 있어 유한성을 완전히 드러내 주는 현상이며, 불안은 죽음을 의식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계기로 양심의 소리에 의해 본래적 자기로서의 실존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양심의 소리는 실존을 회복하도록 나의 위에서 나를 향해 부르짖는 소리라고 한다.

일상에 묻혀 살고 있는 ‘das Man’으로 하여금 무에 대한 불안을 계기로 양심의 소리에 의하여 본래의 자기인 실존을 회복하도록 하려는 것이 하이데거의 실존철학인 것이다.⁷⁾

2) 사르트르의 실존

사르트르(G. P. Sartre, 1905~1980)는 그의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책을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도 가능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만약 신이 있어, 그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본질을 부여했다면 인간은 그 본질에 의하여 한정되어 본질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요, 그 이상의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그 본질에 의하여 제한된 존재로 되어 어떤 자유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에 의하면 실존은 다음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하나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것이다. 본질이란 사물을 그것 되게 하는 성질로서 사물은 그의 본질에 의하여 규정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존은 본질에 의하여 규정되거나 한정되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의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존재로 되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실존은 주체성”이라는 것이다. 실존은 자기의 행동을 선택하고 자기의 미래를 기획하는 주체이다. 본질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본질을 만들어가는 존재인 실존은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앞날을 스스로 설계하는 존재인 것이다.

실존은 자기가 선택하고 기획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책임의 주체인데, 이 책임은 개인에 국한되는 좁은 의미의 것이 아니고 전 인류에 미치는 넓은 의미의 책임이라고 한다. 인간의 행위는 파장을 일으키면서 전 인류에게 파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르트르에 있어 실존은 선택하고 기획하는 자유로운 존재이면서 그의 결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성실한 존재인 것이다.⁸⁾

Ⅲ. 마틴 부버의 실존

1. 사상적 배경

6) F. 짐머만, 이기상 역, 「실존철학」, (경기 파주: 서광사, 1987), 182.

7) 박영식, 앞의 책, 397-401.

8) 앞의 책, 401-402.

마틴 부버는 1878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났다.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그는 만 14세가 되기까지 조부의 집에서 보냈는데, 그의 조부 솔로몬 부버는 유대인 사이에서 저명한 학자로 알려졌었고, 그 지방 계몽운동의 지도자였다. 이런 조부의 영향과 교육적 환경은 그의 웅대한 사상 구조에 중요한 초석이 되어 준 하시디즘 연구로 이어진다. 하시디즘이란 종교적 원칙에 근거한 공동사회 건설 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계 각지에서 유랑하고 있는 유대인 사이에서 이룩된 것이다. 형제애를 원리로 하여 결속된 소규모의 공동 사회에서 그 구체성을 볼 수 있다.⁹⁾

마틴 부버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하시디즘은 인간의 개별성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간은 저마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별화되기 때문에 인간교육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하시디즘의 인간관은 마틴 부버의 철학과 교육의 사상적 모태가 된다.¹⁰⁾

하시디즘에 깊은 영향을 받은 부버는 문화적 방법의 시오니즘 운동에 헌신하였다. 시오니즘 운동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땅, 팔레스티나로 돌아가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유대 민족주의 운동을 말한다.¹¹⁾

2. 사이(Between)로서의 실존

‘관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철학자가 마틴 부버이다. 그는 모든 존재를 ‘관계’로 인식하였다. 그에게 ‘관계’(realation), ‘대화’(dialogue), ‘사이’(between)는 개념상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용어이다. 이런 의미를 고려해 그의 사상은 대화신학, 관계신학, 만남의 신학으로 일컬어지고 있다.¹²⁾

마틴 부버는 사이(Between) 존재로서 인간은 두 개인을 초월하는 관계의 영역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인간은 인간적 존재로 인식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이 곧 대화이다. 인간 사이의 영역은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며, 그것은 너를 객체가 아닌 지금 이 순간 현존하고 있는 사건의 파트너로서 받아들임으로서 발생하게 된다. 결합의 요소로서 대화를 이해하고 있는 부버는, 사람이 타자와 직면하여 현존하는 사건의 파트너로서 관계할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사람이 이해되는 과정을 대화라고 지칭한다.¹³⁾

이처럼 마틴 부버에게 있어 존재는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사이존재’이며, 이는 대화의 본질이다. 실제적인 대화는 ‘나’나 ‘너’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서 발생한다. 사이(Between)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으며 관계를 실현시킬 수 있다. 부버가 인간을 ‘사이(Between) 존재’라고 했을 때, 한자인 인간(人間: 사람인, 사이 간)을 글자 그대로 ‘사이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다.¹⁴⁾

9) 김미숙, 「신학적·심리학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잠언의 “관계” 연구」,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5.

10) 손우정, 「마르틴 부버 ‘만남’의 철학이 도덕과 교육에서 갖는 의의」,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5.

11) 문재상, 「대화로서의 교회」에 대한 연구, 대전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0.

12) 박정철, 「포스트모던 이후의 삼위일체적 관계신학방법론 연구」, 성결대학대 박사학위논문, 2018, 115.

13) 손우정, 앞의 책, 14.

14) 정수희, 「부버의 관계철학을 통해서 본 교사와 학생의 관계」, 전북대학교, 2015, 14.

마틴 마부버에게 있어 인간이란 무엇보다도 ‘사이(Between)로서의 실존’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 사람 하나만을 뚝 떼어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사람에 대해 무엇인가를 깊이 알려면 그 사람의 ‘사이’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요컨대 사람의 본색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이다.

3. 근원어

그는 인간을 한낱 고립된 실존으로 보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인간은 두 가지 관계, 즉 나와 너(I-Thou)의 관계 속에서 나(I)이거나, 나와 그것(I-It)의 관계 속에서 나(I)이다.

근원어는 홀로 있는 낱말이 아니요 어울려 있는 낱말이다. 근원어의 하나는 복합어 나-너(I-Thou)이다. 근원어의 또 하나는 복합어 나와 그것(I-It)이다.¹⁵⁾ ‘근원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 또는 사람이 비롯되는 근본이나 원인’이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되는 것이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것, 즉 더 큰 무엇 또는 흐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근원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언어’보다 더 많은 철학적 함의와 설명을 담고 있는 원초적 언어이다.¹⁶⁾

부버는 ‘나’ 그 자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다만 근원어 나-너(I-Thou)의 ‘나’이거나 근원어 나-그것(I-It)의 ‘나’일 뿐이다. ‘나’라고 말할 때 사람은 ‘나-너’이거나 ‘나-그것’의 ‘나’이거나 그 둘 중의 어느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가 ‘나’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이 두 ‘나’ 가운데 어느 한 ‘나’가 존재하고 있다. 그가 ‘너’또는 ‘그것’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근원어 가운데서 이에 알맞은 ‘나’가 거기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¹⁷⁾

4. 나와 그것의 관계(I-It)

나 (I)는 너(Thou) 혹은 그것(It)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나(I)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둘이 있는데, 그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I-It)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I-Thou)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나’가 어떤 불변하는 실체로서 어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맺는 관계에 따라 바뀌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두 관계에 있어 ‘나’는 동일하게 남아 있고 다만 그 상대, 즉 ‘그것’과 ‘너’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의 관계를 가질 때의 ‘나’와 ‘너’와의 관계를 가질 때의 ‘나’가 서로 다른 ‘나’라는 것이다.

부버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갖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관과 객관의 관계이다. 이 때 주관은 일방적이며 능동적으로 객관을 대상으로 소유하고 수단적 관계로 취급하기 때문에 자연히 객관은 피동적 성격을 띠게 되며 주관에 의해 지배받게 된다.

둘째, ‘나와 그것’의 관계는 경험과 이용의 관계이다. 나와 맞선 대상이 어떠한 관계없이, 그 대상이 신(God)이라 할지라도 일단 나와 그것의 관계(I-It)에 있어서 경험과 이용이

15) 마르틴 부버, 『나와 너』,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5.

16) 김인정, 「교사와 학생의 대화적 관계의 의미와 실제: 부버의 대화철학에 기초한 탐색」,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0.

17) 이상일, 앞의 책, 16.

수반된다.

셋째, ‘나와 그것’의 관계는 과거 안에 존재한다. 수없이 많은 내용물에 둘러싸여 있을 뿐, 어떠한 ‘너’와도 대면하고 있지 않은 ‘나’에게 현재가 없다. 다시 말해 자기가 경험하고 이용 하는 물건만으로써 만족하는 사람은 과거만을 살고 있는 것이다.

넷째, ‘나와 그것’의 관계는 간접적이다. 다시 말해 이 관계는 과학자들이 어떤 대상을 연구할 때에 그저 연구의 대상,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 살피는 것과 같다. ‘나와 그것’의 관계(I에 있어, ‘나’는 세계를 물건과 같이 보아 이를 정복하는 입장에 있으며, 세계는 나에게 한갓 이용과 체험의 대상으로 화하고 만다고 할 수 있다.

5. 나와 너의 관계(I-Thou)

나와 너의 관계(I-Thou)는 사람이나 물체가 구별이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나와 너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의미하고 I-It는 기본적인 물체와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둘 모두 다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과 너(It and Thou)로 발전할 수 있고 Thou가 또 It가 될 수는 있는 것이다.¹⁸⁾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시되어야 할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곧 인격적 관계, 만남, 사이, 대화 등으로 표현되는 나와 너의 관계(I-Thou)이다. 이 대화적 관계로서의 나와 너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다섯 특성을 갖는다.¹⁹⁾

첫째, ‘나와 너’의 관계는 서로에게 능동인 동시에 수동으로서의 상호성을 갖는다. 만남(Meeting)은 나와 너의 존재론적 사이(Between)에서 성립한다. 이 사이(Between)에서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택당하는 상호관계, 즉 전 인격을 건 행위이기에 수동인 동시에 능동인 상호관계가 성립된다.

둘째, ‘나와 너’의 관계는 직접적이다. 나와 너의 관계에서는 상대를 이용하기 위한 어떠한 개념체제도, 어떠한 예비지식도, 어떠한 환상도 개입될 수 없다.

셋째, ‘나와 너’의 관계는 시간적 현재성을 갖는다. 현재성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추상적인 시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충만한 ‘나’가 드러나는 현재를 지칭한다. 다시 말해 참된 삶이 실현되고 있는 지금 그리고 여기를 뜻한다.

넷째, ‘나와 너’의 관계는 강렬성을 갖는다. 강렬성은 관계가 외부에서의 어떤 개입이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나타나는 절대적 관계의 힘, 즉 관계의 노력을 의미하는 동시에 상호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열정이다.

다섯째, ‘나와 너’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표현되기도 한다. 사랑이란 ‘그것’으로 있던 존재가 나의 ‘너’로 다가와서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어떤 대상이 나의 ‘너’로서 관심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 사랑이 가능한데, 그 사랑 속에는 반드시 배타성과 유일성이 있어야 한다.

6. 영원한 너(eternal Thou)

부버는 인간에게 있어 영원한 너(eternal Thou)로서 하나님을 소개한다. 하나님은 하나의

18) 최한구, 「마틴부버의 생애와 사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61-62.

19) 이상일, 앞의 책, 26.

우주법칙이나 절대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그의 ‘너’로 만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나’로 우리 앞에 서시는 분이다. 또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시공간적으로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다. 언제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존재를 바쳐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어느 형편이나 우리를 ‘너’로서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함으로써, ‘영원한 너’와의 만남을 이루어야 한다. 그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관계형성의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동료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긴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²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나와 그것의 관계(I-It)는 인식론적 관계이며, 나와 너의 관계(I-Thou)는 실존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나(I)는 사람을 ‘인식한다’. 즉 한 사람을 그의 사회적 역할과 특징에 기초하여 분석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경험과 이용의 대상, 즉 ‘거기에 있는 사람’이다. 이에 반해 후자의 경우 나(I)는 사람을 ‘만난다’. 즉 한 사람을 상호간의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대상, 즉 ‘거기에 있는 너’이다.

또한 영원한 너(eternal Thou)와의 만남은 개별적인 ‘너’와의 만남을 통해 가능하다. 그는 “모든 개별적인 ‘너’와의 만남은 ‘영원한 너’를 만나게 해주는 창문이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모든 개개에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며, 또한 본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²¹⁾

IV. 코칭의 이해

1. 코칭의 정의

게리 콜린스(Gary R Collins)는 ‘한 개인이나 현재 있는 지점에서 그들이 바라는 더 유능하고 만족스러운 지점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기술이자 행위’를 코칭이라고 하였다.²²⁾ 티모시 골웨이(Timoty Gallwey)는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묶여있는 개인의 잠재력을 풀어주고, 사람들이 코치의 가르침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현직 코치인 에노모토 히데타케는 개인(부하)의 자아실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코칭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영국의 코치인 존 휘트모어(John Whimore)는 코칭을 ‘코칭을 받는 사람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그의 잠재능력을 발휘시키는 것으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코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³⁾

국제코칭연맹(ICF: Internationa Coach Association)에 따르면, 코칭은 인생, 경력, 비즈니스와 조직에서 뛰어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관계이다. 한국코치협회(KCA: Korea Coach Association)에 따르면 코칭은 개인과 조직이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수평적 파트너십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코칭의 정의에 대한 견해를 종합해보면, 코칭은 코칭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도와줌으로써 그가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인적 서비스라는 공통점

20) 최한구, 앞의 책, 91.

21) 이상일, 앞의 책, 58.

22) 게리 콜린스, 정동섭 역, 「크리스천 코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4), 21.

23) 강일용, 「크리스천 코칭을 통한 청소년 양육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35.

을 가지고 있다.²⁴⁾

2. 코칭의 분류

코칭은 크게 라이프코칭, 비즈니스코칭, 커리어코칭으로 구분된다. 라이프코칭은 일상생활에 대한 코칭으로 개인생활의 모든 차원과 영역, 삶의 모든 이슈를 포함하며, 비즈니스코칭은 조직 상황에서 개인이나 그룹에게 비즈니스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혁신 혹은 기업의 문제에 중점을 두며, 비즈니스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도 코칭 이슈에 포함될 수 있다. 커리어코칭은 개인의 커리어 관심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커리어 선택을 위해 개인의 능력을 이끌어내고 피드백을 사용한다.²⁵⁾

3. 코칭의 기술

(1) 경청

코칭에 있어서 사용되는 기술은 대표적으로 경청, 질문, 피드백이다. 경청의 기술이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기술이다. 코칭의 과정에서 코치가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심의 표현으로 상대를 잘 이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술임으로 잘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경청하는 법을 배우고 먼저 이해하게 될 때에 보다 훌륭한 의사소통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데, 특히 고아와 과부와 같이 가난하고 고난 받는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출 22:23)고 하셨다. 또한 솔로몬도 많은 백성들의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였다(왕상 3:9).

(2) 질문

코치는 질문을 통해서 코치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을 자극해 주며, 생각을 변화시켜 줌으로써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코치는 던지는 질문을 통해 코치이의 마음속에 있는 의식의 깊은 곳을 자극하여 가치관, 의미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하셨으며,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해 수시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셨다.(눅 10:36; 마 9:5; 마 7:11 등)

(3) 피드백

코치는 모든 과정을 마친 후 다음의 코칭 시간에 코칭을 통하여 세워진 목표와 실천사항들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점검해 주고 검토해주는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삶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코치이 자신이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변화를 위한

24) 조성진, 「코칭이 자기효능감, 성과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6-17.

25) 박수정,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그룹코칭 프로그램의 효과」,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3.

노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건설적 피드백이란 현재의 문제나 잠재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코치이의 개선을 유도하여 기대치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코칭에 있어서 피드백은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이다.²⁶⁾ 인정, 칭찬, 공감도 중요한 피드백의 기술이다.

예수님은 귀신을 못 내쫓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내쫓을 수 없다고 피드백을 해주셨으며, 예수님 스스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하시면서 피드백을 받으셨다(막 8:29).

4. 코칭의 효과성

조성진·성계충은 “코칭효과연구를 위한 코칭프로그램 개발과 평가”(2010)라는 논문에서 코칭의 효과측정을 위한 개념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 모형에 기반한 코칭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코칭프로그램이 조직몰입, 자기효능감, 가족관계, 직무성과, 직무만족의 5개 변수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²⁷⁾

최인숙은 “코칭기반 인성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2019) 연구를 통해서 코칭기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존중 향상, 배려·소통 향상, 자기조절 향상, 정직·용기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²⁸⁾

김기년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증진을 위한 강점 코칭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2017)에서 청소년들에게 강점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시킨 연구를 통하여 낙관성, 대인관계, 배려 등의 강점요인이 청소년 삶의 만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²⁹⁾

이외에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코칭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코칭이 소통과 관계 향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소외, 불안, 인간성 상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V. 크리스천 코칭의 이해

1. 크리스천 코칭의 의미

콜린스는 크리스천 코칭에 대한 정의를 개인 또는 집단을 도와 그들이 현재 있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점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앞에서 부버는 실존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관계’(realation), ‘대화’(dialogue), ‘사이’(between)를 동일한 의미로 보았다고 기술하였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 중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의 중심에 코칭이 있다는 점은 논의해 볼 만하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원하고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법을 보여 주기 위해 오셨다.

크리스천 코치는 삶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꿈꾸도록 돕는다. 코치는 사람들이 직장, 가정,

26) 안임기, 「크리스천 코칭 리더십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56-62.

27) 조성진·송계충, 「코칭효과 연구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인적자원개발연구, Vol.13 No.6, 2010, 64.

28) 최인숙, 「코칭기반 인성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서울벤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21.

29) 김기년, 「청소년의 삶의 만족증진을 위한 강점코칭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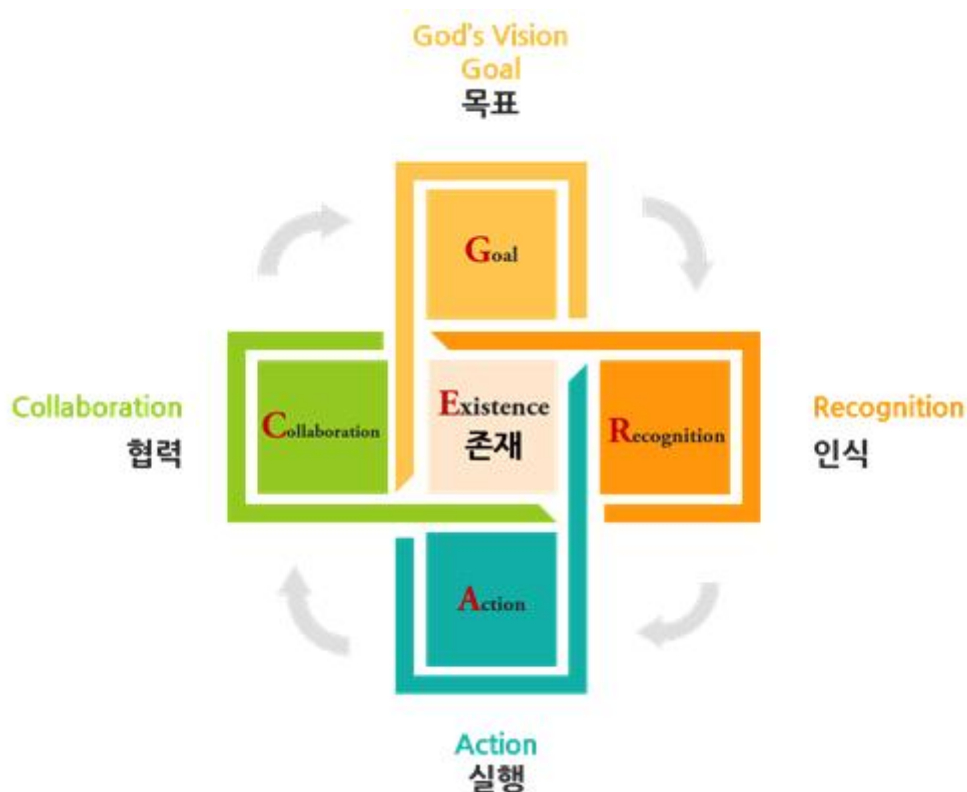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세상에서 보다 나은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한다. 다른 모든 코치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코치는 사람들을 도와 그들이 현재 있는 지점에서 가고 싶어 하는 지점에 이르도록 돕는다. 크리스천 코치는 사람들을 격려하여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자기 일만 쫓아다니던 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삶으로 옮겨 가게 한다.³⁰⁾

2. GRACE 코칭대화 모델

부버는 ‘나’와 ‘너’의 만남은 은총(grace)에 의한 것이지, 결코 찾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³¹⁾ 그렇기 때문에 코칭에 있어서 코치와 코치이의 만남의 관계, 또한 하나님의 은혜(grace)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점에 착안하여 ‘영원한 너(창조주 하나님) - 나(인간실존)’의 사이(between)의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성을 통하여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 인간 실존 가운데 존재케 하는 크리스천 코칭의 중심이 되는 GRACE 코칭대화 모델을 개발하였다.

코칭에 있어서 실제적인 대화 상황에 있어서 코칭 과정의 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는 가는 너무나 중요하다. GRACE 코칭대화 모델과 함께 각 과정의 요소들을 소개한다.



30) 게리 콜린스, 양형주·이규창 역, 「코칭 바이블」,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1), 37.

31) Martin Buber, 김천배 역, 「나와 너」 (서울: 기독교서회, 2000), 26.

(1) 목표(Goal)

목표(Goal)는 장기적으로 코치이가 도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God's vision)이며, 코칭 세션 안에서 고객이 코칭대화를 통해 이루기 원하는 목표(Goal)를 수립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목표는 고객 스스로가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차리게 하며, 고객이 도달하기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준다.

또한 목표는 고객이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그리고 고객이 표면적 이슈가 아닌, 고객이 미래에 원하는 모습을 상상을 통해 명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이 가능하며, 달성이 가능하고, 자신의 가치와 관련이 있으며, 기한이 정해진 것일수록 효과적이다. 코치는 고객이 목표를 세우는데 있어서 코치의 관심사가 아닌 고객의 관심사를 따라 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인식(Recognition)

인식(Recognition)은 코치이의 현실과 미래 상황, 자각, 장애물 등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알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코치는 코치이가 당면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인식단계에서는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와 현재 상태의 차이(Gap)를 파악하며, 현실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장애요인을 인식하게 한다. 고객이 원하는 미래 모습을 상상을 통해 그려 보게 함으로써 펼쳐질 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아울러 미래의 목표가 이루어질 때의 영향과 파급효과를 상상해 보게 한다. 그리고 고객이 가진 자원을 인식하게 하고, 코칭대화를 통해 순간순간 자각된 느낌과 감정을 나눌 수 있게 한다.

(3) 실행(Action)

실행(Action)은 코치이가 대안과 실행계획을 세우는 단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코치는 코치이가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도록 촉진한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 중에서 우선적으로 실행할 것을 선택하며, 실행할 행동이 코칭의 장단기 목표에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코치이는 시한이 명시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코치는 코치이의 실행의지를 격려하고 실행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점검한다.

(4) 협력(Collaboration)

협력(collaboration)은 코치와 코치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고객을 둘러싼 인적, 물적인 후원 환경까지 상호협력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크리스천 코칭에서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합함을 도우시기(롬 8:26) 때문에, 성령은 코칭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가 되신다.

협력의 단계에서는 코치가 고객의 분석과 평가에 대한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고객의 발전을 견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협력은 코치와 고객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기반으로 한다.

(5) 존재(Existence)

Grace 대화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존재 중심의 코칭이다. 여기서 존재(Existence)란 '실존'을 의미하며, 코치는 코치이가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그 존재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

는 실존'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코치는 코치이가 전인적이고 창의적이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본래적 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존재는 코칭 관계 전체에 있어서 코치가 고객과 함께 하는 방식이자 태도이며, 마음가짐이다. 존재는 코칭대화 가운데 라포형성, 경청, 인정, 칭찬, 공감, 목표 및 종결의 합의, 존재로 함께 하기 등을 포함한다. 존재는 코칭세션과 세션 사이(Between)을 중요시하며, 코치이가 실행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메시지를 사용하여 격려하고 응원한다. 그리고 코치이를 향한 크리스천 코치의 중보기도는 강력한 코칭의 도구가 된다.

VI.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여전히 크리스천으로서의 실존과 정체성을 상실한 크리스천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의 실존과 정체성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코칭대화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었다. 기존에 크리스천 정체성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지만, 하나님과의 은혜가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인간 실존과 정체성 회복에 대한 크리스천 코칭대화모델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틴 부버의 실존주의이론의 주요요인인 '하시디즘'과 '만남'의 철학에 근거하여 '너(창조주 하나님)-나(인간 실존)'의 사이(between)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을 위한 GRACE 코칭대화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 마틴 부버의 실존주의이론의 선행연구들과 크리스천 코칭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성경적인 코칭의 개념을 정립하고, 크리스천 코칭대화모델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정립하도록 코칭하여 기독교가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소외와 외로움, 그리고 정체성 회복 없이 허무주의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의 될 수 있음을 확신 속에서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사이(Between), 즉 관계의 철학을 추구하였던 마틴 부버의 주장처럼 은혜로만 가능하다.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는 성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셨다.(마 27:51). 그의 피를 힘입어 인간은 성소에 들어감 담력을 얻었고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히 10:19,20). 그것은 죄로 인해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데, 예수그리스도가 화평이 되셔서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것이다(엡 2:14).

이러한 예수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반으로 개발된, GRACE 코칭대화 모델을 중심으로 하는 크리스천 코칭은 사람들의 극한상황에 놓여있는 인간의 소외현상, 불안,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실존으로서의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세부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틴 부버의 실존의 의미에 대한 본 연구는 그의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주요 요인인 '하시디즘'과 '만남'의 철학에서 '나-너'의 주체성을 가진 인격으로서 세상가운데 관계의 개념으로 인간의 위치와 본질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게 하였다.

둘째, 마틴 부버의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에 대한 본 연구는 참다운 인간 존재는 고립된 실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형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으로 인간과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관계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셋째, 마틴 부버의 실존주의 철학에 대한 본 연구는 ‘너(창조주 하나님)-나(인간 실존)’의 사이(between)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을 통하여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 인간 실존 가운데 존재케 하는 GRACE 코칭대화 모델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를 고찰하였으며 인간에게 놓여진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는 대안이 되었다.

본 연구의 아쉬운 점은 GRACE 코칭대화모델을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세부적인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다양한 연령별, 직업별, 대상별 주요 영역에 대한 실험 사례는 후속 연구의 과제이다. 또한 성숙한 크리스천 코칭의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코칭대화 모델을 비롯한 많은 코칭도구의 개발과 크리스천 코칭리더십 영역의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끝으로 크리스천 코칭이 성장하고 발전하여 앞으로 수많은 크리스천 코치들이 훈련되고 세워지길 기대한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선교지, 각 가정 안에 크리스천 코칭문화가 확립되고, 4차 산업혁명의 다양화된 미래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실존이 회복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되기를 소망한다.

참고 문헌

1. 성경

성경전서·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6.

2. 국내 단행본

- 박영식 (2008). 『서양철학사의 이해』. 서울: 철학과현실사.
F.짐머만. 이기상 역. 『실존철학』. 경기 파주: 서광사.
마르틴 부버. 김천배 역 (2000). 『나와 너』.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최한구 (1992). 『마르틴부버의 생애와 사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게리 콜린스. 정동섭 역 (2004). 『크리스천 코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게리 콜린스. 양형주·이규창 역 (2011). 『코칭 바이블』.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3. 논문

- 이상일 (2004). “마르틴 부버의 실존에 관한 연구 - 나와 너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김미숙 (2017). “신학적·심리학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잠언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손우정 (2010). “마르틴 부버 ‘만남’의 철학이 도덕과 교육에서 갖는 의의.”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문재상 (2009). “대화로서의 교회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가톨릭대학교.
박정철 (2018). “포스트모던 이후의 삼위일체적 관계신학방법론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정수희 (2015). “부버의 관계철학을 통해서 본 교사와 학생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김인정 (2018). “교사와 학생의 대화적 관계의 의미와 실제: 부버의 대화철학에 기초한 탐색.”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정수희 (2015). “부버의 관계철학을 통해서 본 교사와 학생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강일용 (2009). “크리스천 코칭을 통한 청소년 양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조성진 (2009). “코칭이 자기효능감, 성과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박수정 (2016).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그룹코칭 프로그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안임기 (2014). “크리스천 코칭 리더십에 대한 연구: 인간이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목원대학교.
조성진·송계충 (2010). “코칭효과 연구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인적자원개발연구. Vol.13 No.6.
최인숙 (2019). “코칭기반 인성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초등학교 실험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교.
김기년 (2017) “청소년의 삶의 만족증진을 위한 강점 코칭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